

특별기고

화순군 조직개편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 세 현 /화순군의회 의원

새로운 화순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와 함께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달 10일, 화순군은 7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조직개편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 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낮은 직급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조직개편이 한 차례 단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군민들의 우려를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조직개편안이 실제 군 행정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고인돌사업소까지 총 7개의 부서가 신설된다.

문제는 화순군이 현실적으로 방대한 조직으로 부서를 나누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부서 확대가 면밀한 기초조사 없이 이뤄진다면, 현실을 과대평가하여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격의 행정시스템이 될 것이며, 단지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서 신설을 통해 업무의 디테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행정의 업무처리 속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업무의 디테일성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부서를 늘리고 상위 직급을 늘린다는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에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실무 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선 포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나눠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단순화해, 부서 내 팀원을 증원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서 신설을 통해 상위 직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무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군민의 약 64%가 거주하고 있는 화순읍의 경우, 조직이 크고 행정수요가 다양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읍장(4급) 아래 2개 과(6급 경력자)를 운영했는데, 2개 과를 폐지하고 과거 관선 때와 같이 부읍장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에 많은 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있어 중심은 군민이 되어야 한다. 군은 조직개편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해 군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단순히 지자체장의 생각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화순군 실정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화순군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뿐만 아니라, 화순군의 미래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분명하며,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화순군 조직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군민이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비로소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슬로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기



이 나 래 /달양소방서 옥곡119안전센터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65세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온열질환은 중, 노년층 남자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체온이 40℃이상,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을 동반,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심한두통·오한·빈맥·빈호흡·저혈압·메스꺼움·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려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응급조치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시원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개선택되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즉시 119에 신

고한 후 시원한 장소로 옮겨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한다.

응급조치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하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수칙은 첫째 시원하게 지내기다. 샤워를 자주 하고 햇볕이 강한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며 외출 시 햇볕을 차단(양산, 모자 등)해야 한다.

둘째 물을 자주 마신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다.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음을 요청해야 한다.

독사에게 물린 경우 국소적 반응으로 통증이나 히스타민 반응에 따른 부종, 가려움증, 열감, 발적, 두드러기, 열상, 출혈에서부터 국소적 근육 괴사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뱀의 색깔이나 모양 등 특징을 기억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누워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고 물린 부위로부터 심장 쪽으

로 5~7cm 되는 부위를 3~5cm 폭의 천으로 묶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꼭 조인 다음 서서히 풀다가 맥박이 강하게 느껴질때 천이 풀어지지 않게 묶으면 된다.

특히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흡입하는 행위는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주의하길 바란다.

등산 등 야외활동 시에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자.

봄철, 야외활동 시 뱀 물림 주의



이 희 수 /장흥소방서 119구조대장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야외활동이 잦은 5월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뱀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방서는 뱀 조심 당부에 나섰다.

뱀은 인기척을 느끼면 먼저 자리를 피하는 습성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 전에 나뭇가지 또는 등산스틱으로 먼저 인기척을 내고 쉬어야 한다.

뱀에 물리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는 119에 도

Advertisement for Hoonam Maeil Digital New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m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d regions, including phone numbers for Seoul, Gwangju, and other areas.